

불자 세상보기



정재영  
병영인권연대대표

우리는 흔히 군인을 사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라 말한다. 그러기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신사라고도 한다.

실제 영화 '탑건' 은 세계적 배우의 탄생과 함께 멋진 군인, 멋진 사관의 꿈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었다. 판타노마에 주둔 중인 미국 해병부대에서 사랑한 병사의 사인과 관련하여 죽음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려낸 '어 퓨 굿맨' 역시 현역 해병장교의 '명예와 정의감'을 자극함으로써 잔잔한 감동과 동감을 이끌어냈다.

다른 몇 편의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감동이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들을 본 관객이라면 대부분은 군인에 있어 명예와 정의감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숨보다 소중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에 의의가 없을 것이다.

윤 일병이 죽었다. 맞아 죽었다. 선배들 여럿이서 집단으로 구타했고 이를 말리거나 막아야 할 지휘자도 묵인하거나 혹은 가담했다. 맞다가 쓰러지면 수액을

주사하고 정신을 차리면 또 때리고, 가래침을 혀로 핥게 했다.

지휘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야만적인 가혹행위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윤 일병을 돕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김 일병은 죽어간다. 찰나시간에 발생한 선병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혼절해 며칠만에 깨어나 마주한 자신의 모습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안와골이 골절되면서 눈알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고 운명이 명투성이인 중환자였다.

급히 후송된 병원에서 눈에 보이는 외과적 상처만 응급조치한 의사는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었고, 후송해온 간부는 계단에서 굴러넘어진 병사라며 거짓말했다. 상태가 중하니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권고를 받은 간부는 응급조치만 마친 병사를 데리고 급히 부대로 돌아가 생활관에서 재웠다. 도착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김 일병을 보고 놀란 아버지는 아들을 차에 실어 다시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군은 가해병사의 부모와 합의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피해병사의 부모를 압박했다. 현재 중상을 입은 김 일병의 치료를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군대가 좋아졌다고 다들 말한다. 당사자인 군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그리 말한다. 정말일까? 무엇이 좋아진 것일까? 무더운 여름날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간신히 면한 것을 좋아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배가 고프고 민가를 기웃거리던 비참함을 벗어난 실정을 좋아했다고 말해야 할까?

동로 간 우애와 배려가 무쳐져 전우애로 승화되고, 지휘관의 술선수법에 부하들이 감동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복종심과 충성으로 발휘되는 합리적 리더십을 현재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부하들의 희생과 불이익을 몸으로 막아내는 책임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진급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기형적 가치관이 현재 군대에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엄정하게 집행되고 유지되어야 할 법치는 원칙이 없었고, 그조차도 형량감경권이란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줄이고 늘이기를 마음대로 한다. 아무리 많은 부하가 목숨을 잃어도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않고, 지휘책임에 따른 처벌도

받지 않는다. 병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심 없이 공급되고 변화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유지에 문제가 없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급여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두려움을 버려야한다. 우리는 매일 1천 명의 아들을 군에 보낸다. 우리 아이들이 가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곳의 실정이 어떠한지 알아야한다. 알려달라고 말하고 요구해야한다. 우리가 국방과 안보의 부담자이며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면전에서 부모를 욕하는 모욕과 불효를 저항 없이 감내해왔던 야만과 무지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못했다. 불편한 진실을 방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죽은 윤 일병과 죽어가는 김 일병의 고통은 군과 지휘관이 아닌 내 탓이다.

군복을 입은 채 죽었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위기의 정보문화재 대책이 시급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도, 해인사 대장경판도 부실하게 보존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나 불교계 안팎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석굴암과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한 부실 논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본지가 전체 목록을 대조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보존 등급 D이하 문화재는 149건으로 이중 불교 문화재는 123건으로 80%에 달한다. 국보만 국한할 경우 보존 등급 D이하의 불교 문화재는 절반에 가까운 42%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야외에 노출된 석탑 등 다수의 석조 문화재는 재질 풍화, 생물오염 등에 따른 잠재적 훼손도가 높아 1601건 중 642건(40.1%)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석굴암은 대좌부와 공릉천장이 갈라지고 색깔이 변했으며, 해인사 장경판전 안에서는 습기가 발견돼 자칫 전각과 경판이 훼손될 수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엄사 각황전은 처마를 받치는 활주가 크게 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벽체 내·외부 회벽이 떨어져나가고, 마루에 균열이 생겨 당장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재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익숙해졌다. 대형 참사가 나타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도무적이다. 정책을 낸다고 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거나 이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재는 다르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융성'은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활용할 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한국 문화재 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그 보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의 제대로 된 문화재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나지 않은 '광복운동'과 불교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올해로 69주년을 맞았다. 광복절이 되면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공동체인 '나눔의집'이 선정됐다.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공동체로 2014년 현재 약 10여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대표하는 나눔의집의 평화대상 수상소감을 신는다.

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다 끝난 일이라고 제멋대로 말한다.

하나 더 있다. 최근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외로 반출 문화재 약 16만여 점중 일본이 소장하는 문화재가 약 6만 7000여 점으로 가장 많다. 상당수는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환수 대상이다. 반성과 사죄는 때가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 및 위안부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또한 2014년도 외교 청서(靑書)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든 입장'이라고 표현했다. 피해자

만해 평화대상 수상 소감

만해사상실선전양회가 제정한 '2014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에 위안부 할머니들 공동체인 '나눔의집'이 선정됐다.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공동체로 2014년 현재 약 10여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대표하는 나눔의집의 평화대상 수상소감을 신는다. <편집자주>

'못다 핀 꽃' 들을 위한 평화대상 수여에 감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있는 '만해평화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수난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은 일본군에 강제 연행돼 가장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소녀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귀국하였으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수요집회'와 국내의 '증언집회'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19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눈이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 정오에 가장 평화적인 '수요시위'와 미국 하원 청문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노동기구, 2000년 도쿄 민간법정, 일본 참의원 회관, 일본 청년관,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전 세계 '증언집회'는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쟁범죄이자 인권유린사건이라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미성년자 강제노동이라 규정했으며, 국제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도쿄 민간법정에서는 일본 천왕을 전범으로 기소했고, 2007년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故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자 고백 이후, 많은 분이 줄을 이어 일본의 범죄사실을 고백하고, 정부에 피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대부분 결혼을 하지 못해, 보호자나 수발자도 없고 오갈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 1992년 10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



의집(설립자 및 대표이사 송월주)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해 1998년 나눔의집 부설로 세계 최초 인권 테마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권문제이자 평화를 외치는 '못다 핀 꽃'들에게 만

해평화대상'은 가장 큰 상입니다. 20세기 가장 불행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여성인권활동가로 인정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상금은 또 다른 인권을 생각하고 세계 활동가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공동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영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함습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함습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중앙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명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nia5@daum.net